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su

역력
· 경원건축사사무소 대표
· 한국건축사진학회 회장

Lecture

건축사와 건축사진가

그동안 건축사진을 촬영하면서 수많은 건축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건축사사무소와의 만남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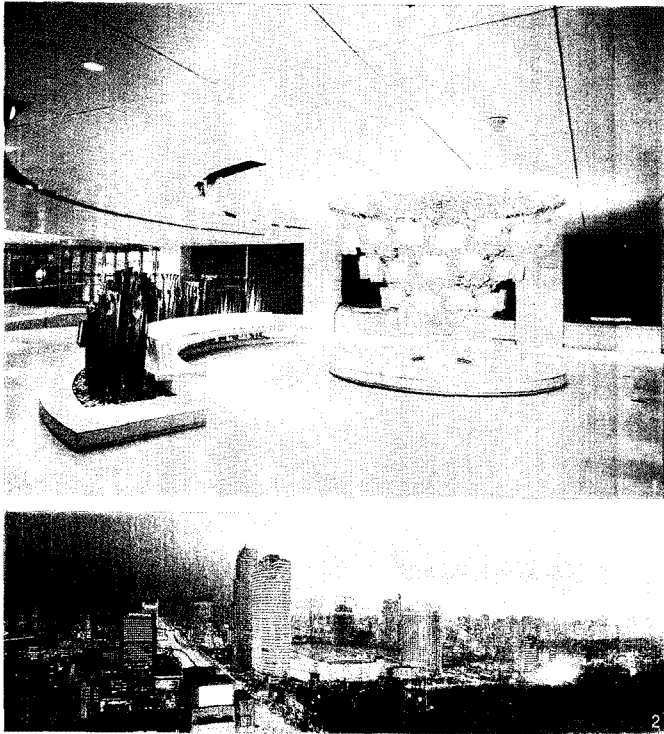
좋은 건축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건축물들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다. 이러한 결과물인 건축에 대한 일부 건축사진가의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그저 건축물에 대한 복사나 형태들을 카메라에 담는 단순한 일로 비하되기도 한다.

필자가 오랜 세월동안 건축사진을 촬영하며 지내오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저 유명한 건축사진가라고 불리기도 하여 만남이 이루어 졌다. 유명한 건축사진가이니 알아서 좋은 건축사진을 찍어 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그러나 건축사진은 건축에 대한 이해와 건축사의 생각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좋은 건축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건축사들과 만나며 건축작품을 촬영하다보면 갑작스레 자신의 건축 작품을 알아서 좋은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 혹은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준비 없이 갑자기 촬영의뢰를 받아 현장에 나가 건축작품을 촬영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의 여러 조건 등을 잘 모르는 상황임으로 좋은 사진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어떤 때는 건축물을 촬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전봇대가 건물 앞에 설치되어있어 전경사진을 촬영하는데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길이 좁은 골목길 안에 건물전체를 촬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건물외벽에 더덕더덕 붙은 간판들로 인해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사진을 촬영하는데 공간과 조화되지 못하는 규모가 커다란 가구나 응접세트와 같은 소품들이 어울리지 않아



1. 서울 삼성본관에 디자인한 삼성전자 쇼룸(미국 버디그룹 설계디자인)
2. 강남 삼성동 코엑스주변 야경



서울 역삼동 LG타워주변 야경

좋지 못한 사진을 촬영하는 일도 생긴다. 그리고 설계자와 건축주와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 마찰이 벌어져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촬영하느냐고 핀잔을 받기도 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김수근선생의 작품 중에 하나인 자유센터라는 콘크리트건축물을 촬영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비가 오면 건물내부로 물이 흘러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물을 퍼내느라 고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촬영한 일이 있었다. 필자는 건물을 촬영하고 돌아와 김수근선생에게 촬영하는데 어려웠던 이야기를 전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김수근선생의 대답은 설계디자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설계디자인 보다는 시공상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던 시기여서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되어 더욱 좋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사와 건축사진가의 만남에서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촬영하다보면 건축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도 있으며, 건축물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건축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 건축사진가가 임의대로 촬영하다 마찰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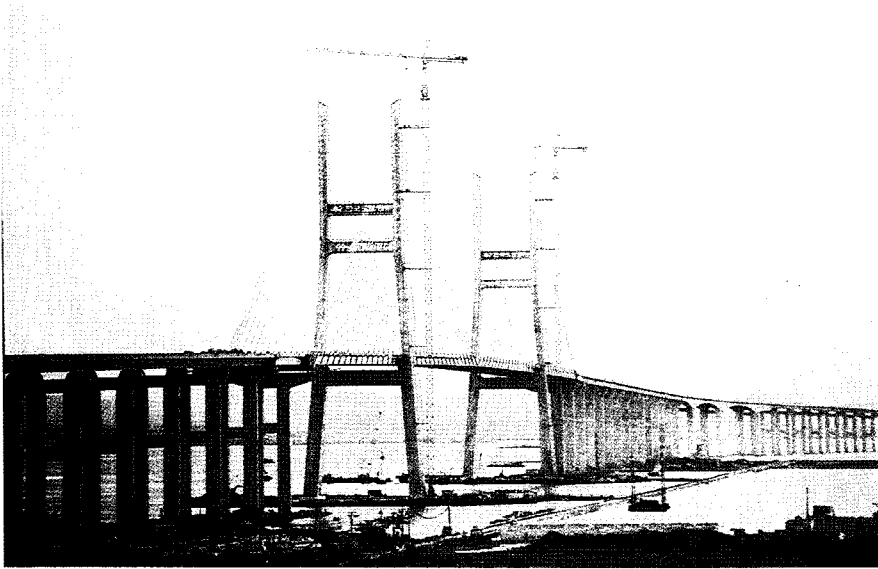
이렇듯 서로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져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알아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는 것은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사용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해외 건축사무소들과의 작품촬영인 경우에는 서로간의 오해를 부르는 일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들은 촬영자에게 일일이 자신의 건축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전해준다. 전체 도면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건축 작품에 대한 의도와 촬영하는 위치까지 선택하여 알려주는 일들은 국내 건축사들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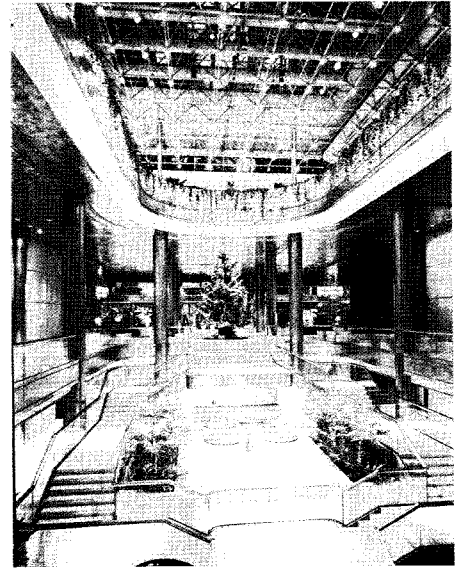
필자는 가끔 해외 건축사무소로부터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본사를 두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에 건축작품을 디자인하고, 준공한 건축작품들을 촬영하는 일이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에 본사를 둔 B그룹이라는 건축사무소와 삼성전자가 함께한 프로젝트를 촬영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에도 건축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섭외를 하여 촬영해 달라는 요청에서 그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 일단 팩스로 도면과 촬영하려는 위치의 선정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의 선택 등을 일일이 체크한 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취하여 준다.

건축작품 중에 하나는 서울 삼성본관 로비에 디자인 한 작품으로 실내건축 작품이다. 일종의 인테리어촬영으로 낮 시간대에 촬영하는 것 보다는 저녁시간대에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여 촬영시간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작품이 저녁 무렵에 촬영하려면 로비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네온사인이나 자동차의 라이트들이 비춰지게 됨으로 좋지 못한 사진이 될 것을 우려해 로비에 있는 창문들을 일일이 회색 종이로 막아준 일이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인부를 사서 그 많은 창문들을 가려주니 사진으로 보여지는 건축 작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촬영하는 위치는 서로가 협의하여 촬영하게 되지만 자신들이 요구



서해대교 공사모습_서해에 범선의 이미지로 디자인한 모습 (프랑스 후레쉬네 설계디자인)



서울 힐튼호텔 내부모습(SAC김종성설계)

하는 사진의 수량보다 더 나아가 건축사진가의 눈으로 보는 추가되는 사진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것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대화로 풀어 나가는 일들로 너무도 쉽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미국식 사고방식도 아니다. 그들은 모든 건축 작품을 만들면서 보여지는 결과물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가 대화하면서 차후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나 있었던 일로 생각되지만 최근 들어 디지털의 응용으로 모든 사진에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미국에 본사를 둔 S건축사사무소와의 건축작품 촬영에서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한국에 디자인한 건축작품들 중에 하나였던 LG 아트센터의 건축 작품으로 현장에 나가 촬영하려고 해보았지만 준공이 되기 위해 아시

바와 같은 부재들이 치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좋지 못한 사진이 될 것을 우려해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 촬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아시바가 걸쳐있는 상태로 사진을 만들어 보내 주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사용한 나의 사진은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너무도 좋은 사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눈을 의심하였지만 그것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한 사진이었다.

그래서 미래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건축사진가는 주제가 되는 건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눈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